

방문진 이 정도였나 김세은 교수, 해명·사과 요구



2016년도 MBC 경영평가보고서가 폐기된 건 방문진 적폐 이사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들이 벌인 행태는 더 추잡하고 몰상식적이었다. 조합 취재 결과 경영평가 보고서의 시사·보도 분야를 담당했던 강원대 김세은 교수는 방문진에 질의서를 보내 직접 문제제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 내용의 누설·공표를 금지한 계약 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방문진의 작태들이 이 질의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문진 구여권 인사들은 보고서 내용에 사사건건 판지를 걸었다. 수정과 삭제 요구가 수십 차례에 달했다. 평가의 대상인 MBC에 보고서가 흘러들어갔고, MBC는 검토 의견까지 제시했다. 학생이 시험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학부모와 함께 점수를 고치라고 교사에게 요구한 셈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사들은 때로 몰려왔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말도 없이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했다.

근거 없는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김 교수의 전

문성과 학문적 성과를 폄훼하기도 했다. 이렇게 학자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도 김 교수는 계약 조건 때문에 반박할 수도 없었다. 김 교수는 방문진에 보낸 질의서에 ‘큰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또, ‘오로지 경영평가 보고서의 통과를 위해 그 모멸감을 참고 견뎠는데, 결과는 보고서의 폐기였다’며 방문진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김장겸 지키기’ 말고는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의 한심한 작태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직무유기’를 감수하고서라도 김장겸이 불공정 보도의 책임자로 공식화되는 건 몸을 던져 막은 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무덤을 파버렸다. 몰상식한 보고서 작성 개입부터 무책임한 보고서 폐기 과정에 대해 이제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문진 감사 감독에 착수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녹화 뉴스’ 뉴스에 대한 철학은 있는가

‘녹화 뉴스’.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가 현실이 됐다. 어제 (27일) 오후 5시 <이브닝 뉴스>가 시작됐다. 타이틀 화면이 나가고 앵커가 등장해 청와대 회동 소식을 전하며 평소처럼 진행됐지만, 사실은 이날 오후 미리 촬영된 ‘녹화 뉴스’였다. 이를테면 ‘창조적 적폐’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까?

뉴스는 생방송이 기본이다.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속보 자막을 띄우고, 앵커가 먼저 소식을 전하고, 발 빠르게 리포트를 제작해 시청자

에게 알려야 한다. 또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경우 현장 기자를 라이브로 연결하거나 스튜디오에 직접 불러 듣는 게 당연하다. 뉴스를 녹화로 방송한다는 건, 이런 기본 중의 기본조차 무시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녹화 뉴스’가 방송되기 직전, MBC 화면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라는 영상물이 나갔다.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모순이다. 그동안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며 이미 그 의미를 잃은 허언이었지만,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청자 기만 뉴스, 의미 잃었다

게다가 이날 <이브닝 뉴스> 어느 순간에도 ‘녹화 방송’이라는 고지는 없었다. 시청자 입장에선 당연히 생방송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적폐 경영진들이 엉터리 뉴스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다. 여기에 주요 소식을 간략히 전하는 하단자막과 실시간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수어도 빠졌다. 최신 정보를 담아야 하는 기상정보도 생략됐다. ‘녹화 뉴스’가 계속된다면 모든 언론 매체가 전하는 급박하고 중요한 소식을 누락할 수밖에 없다. ‘방송 사고’이자 ‘시청자 기만’이다. 뉴스에 대한 철학도 능력도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영진은 파업 핑계 대지 말고 물러나라. 공정한 뉴스, 경쟁력있는 방송은 우리 손으로 이뤄낼 것이다.

월권, 몽니...MBC·방문진의 만행

평가 대상이 보고서 검토?

김세은 교수는 지난해 말 보도·시사 분야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등에 모두 참여했고, 5월 초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런데 방문진은 이를 MBC에 전달하고 검토 의견을 받은 뒤 수정본을 요청했다. 평가의 대상인 MBC가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수정을 요구하는 MBC의 태도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김 교수는 “피평가자가 검열하듯이 자료를 왜곡하고 사측에 유리한 해석을 늘어놓는 등 보고서 작성의 독립성, 공정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의 집요한 방해공작

더 어이없는 것은 엄정한 경영평가의 의무가 있는 방문진의 태도다. 경영평가보고서에 대한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의 방해 공작은 노골적이고 강압적이었다. 총대를 댄 건 구여권 추천 김광동 이사였다. ‘왜 jtbc를 준거의 틀로 삼았나’, ‘표현이 과격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적인 내용의 수정과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유의선 전 이사는 “김 교수는 원래 이런 수준이 아닌데 급하게 작성한 것 같다”는 언론플레이까지 자행했다. 지난 7월 김광동, 김원배 이사는 김세은 교수와의 면담에 한군데 감사까지 배석시켜 보고서 수정을 요구했다. 경영평가에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언론학계 선배 교수라는 지위로 김세은 교수를 압박하고자 한 감사를 면담에 동원한 것이다.

심각한 월권이자 계약 위반

이 같은 치졸한 방해 공작은 명백한 월권이자, 계약 위반이다. 연구용역계약서 제4조는 ‘진흥회는 연구자의 권위와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고, 연구자는 본 연구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방문진이 평가위원에게 수정과 삭제 등을 요구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은 제5조 “‘진흥회’는 연구서 검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하략)’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완’이지 막무가내식 ‘검열’과 ‘수정’, ‘삭제’의 권한은 아니다.

왜곡, 궤변...“김장겸을 지켜라”

방문진은 김 교수에게 4차례에 걸쳐 수십 건이 넘는 수정, 삭제를 요구했다. 부정적인 내용은 몰타기로 왜곡하고, 심지어 자의적으로 삭제까지 했다. 그 중 일부만 살펴봐도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몽니였는지 드러난다.

1. **[원문]** <PD수첩>에서 정부 정책을 집중 검증하거나 권력층의 비리를 고발하는 아이템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적 사안을 정면으로 다뤄본다거나 하는 아이템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아무리 시사 프로그램이 사회 각 영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시사 프로그램의 본질은 탐사보도를 기축으로 한 고발과 비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수정]** <PD수첩>에서 **정부정책 비판이나 권력층 비리와 같은 거대담론 보다는 생활밀착형 성찰과 세밀한 각론 중심의 비판이 주를 이루는 모양새였다. 고도화된 민주국가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치밀한 관계를 따져야 하는 시사프로그램의 성격상 “특정한 주의주장의 주장자 혹은 이념의 전파자로서보다는 상이한 시각과 견해를 사이의 교환, 토론, 논쟁을 매개하는 공론장 역할”에 충실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원문]**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2015년에 난 만큼, 공정성이라는 공영방송의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 MBC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노사 관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간 노사 문

제 관련한 일련의 소송에서 사측의 계속적인 패소 결정은 공영방송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대다수 MBC 구성원,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정서가 다르지 않음을 증빙하는 것이다.

→ [전문 삭제]

3. **[원문]**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2016년 1월 발표한 MBC의 매체 합산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7.6%로 KBS(1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수정]**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2016년 1월 발표한 MBC의 매체 합산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7.6%로 **KBS(1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뉴스시사보도 부문 여론영향력 2위를 기록했다. 한편 2016년 6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2016년 상반기 TV시청자조사>에서 MBC는 ‘뉴스연상 채널’ 2위 및 ‘믿고 볼 수 있는 채널’ 1위를 기록했다.**

MBC에 대한 경영평가의 심의·의결은 방문진법에 명시된 법적인 의무다. 김광동, 김원배, 권혁철, 이인철 등 구여권 인사들은 엄정해야 할 경영평가에 대해 경영진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사실상 경영평가보고서 폐기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관리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들이 경영평가보고서를 폐기할 목적은 김장겸 지키기일 뿐이다. 보도본부장 시절의 흠결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 김장겸 사장이 무참히 망가뜨린 MBC 보도·시사 분야는 바닥을 치고 있는 시청률은 물론 선호도, 신뢰도 조사에서도 그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적반하장, 어불성설로 경영평가를 무시한 MBC 경영진과 법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김장겸 비호에 앞장선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만 남아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김광동, 이인철, 김원배 이사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정원 극우매체 지원.. MBC·방문진도 거들었다

극우매체 <미디어워치>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즈음 창간됐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4년간 국정원은 삼성 등 26곳의 민간기업, 한전 등 10개의 공기관을 동원해 <미디어워치>에 4억 원의 광고를 몰아줬다. 국가 정보기관이 댓글부대도 모자라 극우매체의 ‘돈줄’까지 대주며 지원한 것이다.

국정원 지원을 받은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대표는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MBC 라디오에서 하차한 김미화 씨를 친노종북이라고 공격하고,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카카오(다음)도 ‘친노종북’, 이재명 시장도 ‘종북매국노’로 비방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미디어워치>와 변희재는 멈추지 않았다. 국정원 같은 거대 권력기관의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폭주였

다.

이런 극우매체 육성엔 국정원은 물론, 국정원에 장악 당한 방문진과 MBC 경영진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해 ‘방문진 사업홍보 매체 선정 현황’에 따르면 자체 사업 공모 홍보 지출 3,520만 원 중 60%가 넘는 2,200만 원을 <미디어워치>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폴리뷰> 등에 집행했다. 방송 관련 학술연구 사회공헌사업 방송진홍사업과 해외방송연구지원 홍보비 2,090만 원 중 70%에 달하는 돈을 보수·극우매체에 몰아줬다. 올해 2월에도 해당 사업 광고 홍보 매체로 <미디어워치> <미디어펜> <뉴데일리> 등 극우매체를 포함시켰다.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 집행해야 할 소중한 돈이 정권 홍보를 위해 허위 비방 뉴스를 일삼았던 극우매체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이 세 곳은) 공정한 매체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감싸는데 급급

했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였던 MBC와 극우매체는, 낮 뜨거운 부당거래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이 ‘최승호·박성체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털어놔던 그 식사자리엔 극우매체 <폴리뷰> 박한명 국장도 동석해 있었다.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걱정하던 백 본부장에게 박 국장이 ‘(노조에 대해) 먼저 공격을 몇 번 하겠다’고 측면 사격을 약속하자, 백 본부장은 <폴리뷰>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상의 도움’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또 방송 출연까지 요청했는데, 이후 박 국장은 실제로 ‘MBC 100분 토론’과 라디오 ‘시선집중’에 패널로 등장했다. 이명박 정권에 이미 철저하게 장악 당한 MBC가, 정권 친위대로 나선 극우매체들까지 먹여 살리는 숙주 노릇까지 한 것이다.

‘안티MBC’도 국정원의 MBC 파괴 공작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노동조합)가 지난 2009년 1월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강행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일 무렵, 정체불명의 온라인 카페 하나가 등장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안티MBC’ 카페다. 처음에는 주로 조합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다, 나중에는 4대강 사업을 찬양하는 등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2012년 12월 이후에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고, 지금은 ‘삶은 계란’으로 이름이 바뀐 채 방치돼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를 개설한 ‘kkokkonut’은 국정원 직원이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수사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 일람표’에 특정돼 있다. 개설자인 ‘kkokkonut’은 이 카페에 총 3,245건의 글들을 올렸다. MBC와 언론노조를 비방하는 글들도 상당수였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김재철 사장 취임 반대 파업을 벌이던 2010년 4월 ‘kkokkonut’은 ‘(MBC) 제작진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한다’는 이틀 뒤 돌려받는 식



으로 지난 10년간 20억원을 챙겨왔다고 한다’는 비방 글을 올렸다. kkokkonut뿐만 아니라 Incredible, Giant라는 아이디도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국정원 직원 또는 보조요원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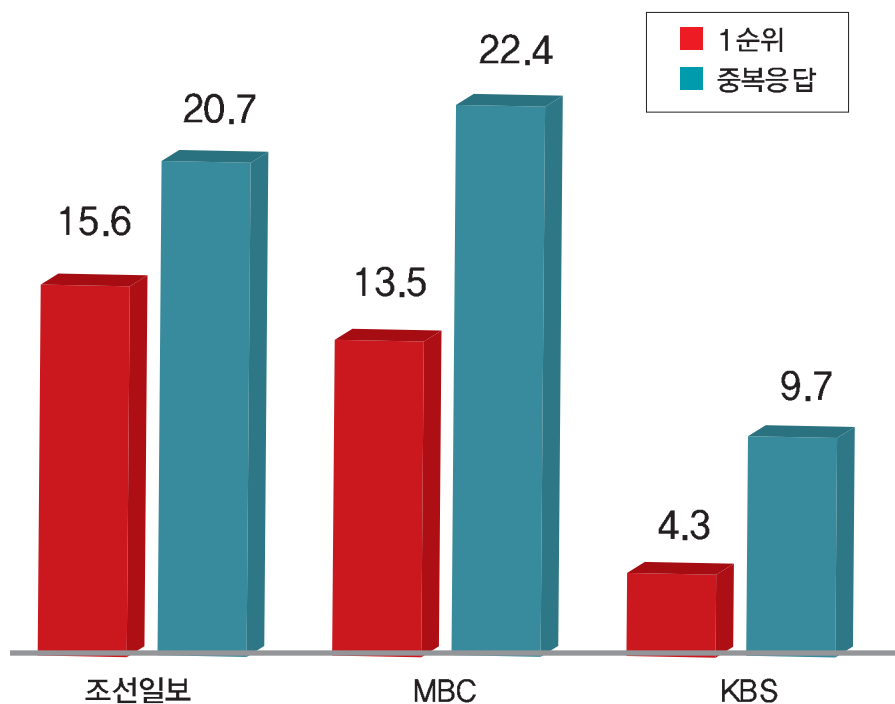
‘안티MBC’를 개설한 장본인이 국정원 직원이란 건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엔 국정원 ‘정치 개입’의 한 사례 정도쯤으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이 새

롭게 드러나면서, 새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안티 MBC’ 카페도 결국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MBC를 장악하고 파괴시키기 위해 만든 언론 공작의 일환으로 생겨났다가, 나중엔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개입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과 당시 국정원의 ‘MBC 죽이기’는 결국 ‘MBC 장악 문건’이 만들어진 지난 2010년 3월보다 훨씬 전부터 기획됐다는 얘기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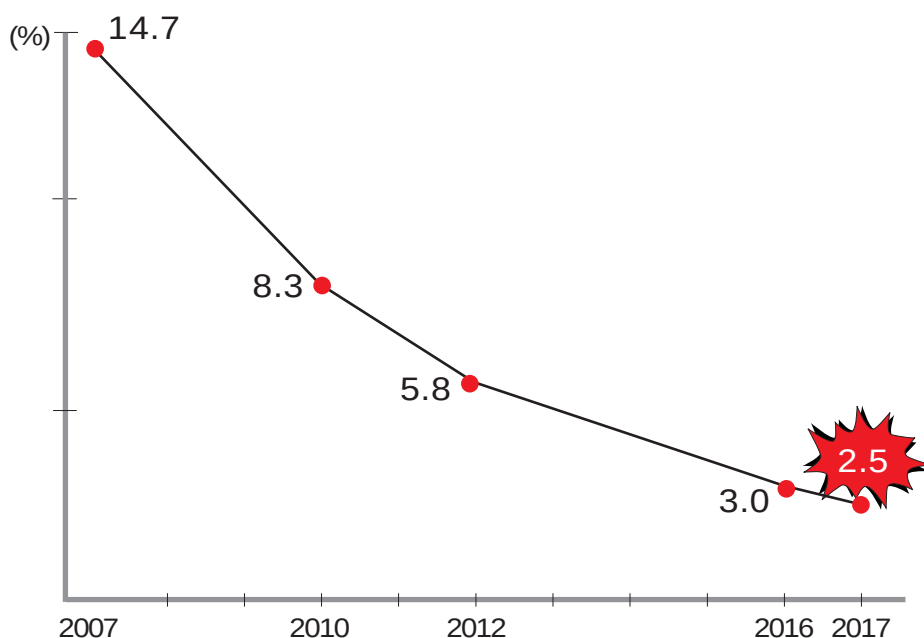
MBC,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시사인> 조사

가장 불신하는 매체



뉴스데스크 신뢰도 변화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실시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MBC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매체 중 가장 불신하는 매체' 타이틀을 놓고, MBC는 <조선일보>와 최악을 다투는 지경이 됐다. 'MBC는 못 믿겠다'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MBC, 조선일보와 '불신 양대산맥'

방송-신문-인터넷을 통틀어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 응답자의 15.6%가 <조선일보>를 꼽았고, 두 번째로 많은 13.5%가 MBC를 골랐다. 2순위까지 합산하면 MBC를 가장 불신한다는 응답자가 22.4%로, 20.7%를 기록한 <조선일보>보다도 1.7%포인트 오히려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응답자 가운데 15.6%가 MBC를 가장 믿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른바 '보수 지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응답자의 18.2%가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 MBC를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 성향 구분으로 보면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 중 16.3%가 가장 믿지 않는 매체로 MBC를 선택했는데, 중도와 보수 성향에서도 각각 13.7%, 11.2%가 MBC를 신뢰도 최악으로 꼽았다.

뉴스데스크 '날개 없는 추락'

MBC 뉴스데스크의 신뢰도 추락은 그 속도가 아주 가파르다. 지난 2007년, MBC 뉴스데스크를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했던 응답자는 14.7%에 달했다. KBS 뉴스9와 함께 '가장 믿고 보는 뉴스'는 바로 MBC 뉴스데스크였다.

하지만 정권의 개입, 회사-보도국 수뇌부의 '보도 농단'이 지속되면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신뢰는 와르르 무너졌다.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170일 파업이 벌어졌던 지난 2012년, 뉴스데스크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5.8%로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보도 통제가 계속 이어진 지난해에는 3.0%, 올해는 2.5%로 역대 최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뿐만 아니라 뉴스데스크와 함께 가장 신뢰받는 프로그램으로 주가를 높였던 100분 토론, PD 수첩, 시선집중 등도 2013년 이후 순위권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신뢰도 회복 '마지막 기회'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도 설문에서 지난 2009년 14.3%로 2위를 차지했던 MBC는 2015년엔 1.1%로 10위까지 떨어졌다. 또한 시사저널이 내놓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조사에서도 MBC는 2015년 18.8%로 4위 자리를 겨우 지켰지만, 작년 14.9%로 5위, 올해는 7.9% 6위에 그쳤다.

신뢰를 잃은 방송사가 영향력을 상실하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회사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했지만, 김재철 이후 현 경영진 체제까지 우리는 늘 새로운 바닥을 확인해야 했다. 지금 MBC를 재건하지 못하면, '불신 MBC'의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번 <시사인>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유선전화 RDD와 이동전화 RDD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다.

파업 지지 여론 확산.. “MBC 재건은 국민의 명령”

MBC, KBS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사인>이 오늘(2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9%가 MBC, KBS 두 공영방송사의 파업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KBS 경영진과 노조 중 ‘누구의 주장을 더 신뢰하나’는 질문에는 623%의 응답자가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더 신뢰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진 측의 주장을 더 신뢰한다’는 사람은 13.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4.1%였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파업을 지지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민심은 똑같이 확인된다. <미디어 오늘>이 25일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 3.1%p 신뢰수준 95%)에선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9.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였다. 또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실행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5%,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14.5%였다.

<쿠키 뉴스>가 26일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 3.1%p, 신뢰수준 95%)에서도 응답자의 60.9%가 MBC 파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9%였다.

여러 객관적인 여론조사들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들도 공정방송 복원을 위해선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의 즉각 사퇴를 바라는 것이다. MBC 재건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의 과제다. 우리가 이번 파업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꼭 이겨라’ 성원 쇠도 · 온정 답지

지난 21일 한 시민이 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 서 노동조합 관계자를 찾았다. 김유호 정책국장이 내려가 보니,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산양삼 두 상자와 홍삼음료 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이용마 기자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산양삼을 이용마 기자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산양삼은 산에서 산삼처럼 키운 인삼이다. 홍삼음료는 노조 집행부에게 남겼다. 여러 차례 성함을 물어봤으나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끝내 누구지 말하지 않고 사라졌다.

MBC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품이 노조 사무실을 채워 가고 있다. 익명의 한 시민은 초코파이가 가득 든 간식상자 두 박스를 보내왔다. 초코파이 한 개 한 개마다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를 일일이 붙여놨다. 상암동의 한 주민이 보내온 포도 두 상자와 사과 한 박스를 비롯해 컵라면과 속취해소음료, 꽃바구니 등 파업 승리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온정이 쇠도하고 있다. 특히 컵라면 270박스는 아직도 김연국 위원장 사무실 공간을 상당히 점령하고 있는 상태다. 헐벗고 굶주린(?) 파업

자들은 위원장 방에 들르길 권장한다.

파업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성원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꽃집 사장님은 “TV뉴스만 보고 노무현 대통령도 싫었고 세월호 유족도 너무하다고 생각했던 무지한 아줌마”로 자신을 소개하며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달라”는 응원의 편지와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또 다른 시민은 “뜨거운 연대와 격려를 표하고 싶었다”며 추석을 앞두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 송편 7상자를 조합원들에게 후원하기도 했다.



“심원택,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5·18 폄훼...퇴진 총력 투쟁 돌입

언론적폐 세력의 공범자이자 언론장악 부역자 중 한 명인 여수MBC 심원택 사장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5·18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정신을 폄훼한 심원택 사장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언론노조 MBC본부 여수지부와 함께 심원택 퇴진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두환도 피해자... 5·18 북한군 개입설도 팩트일수 있어”

심원택 사장은 지난 5월 23일, 회사 관계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최근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을 언급하며 씻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심원택은 전두환을 피해자로 규정했고, ‘멋진 사람’으로 평가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5·18 북한군 개입설’도 서슴지 않고 입에 올렸다. 공영방송 MBC의 지역사 사장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명 깊었느냐”고 힐난했지만, 심원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심 사장이 전두환 얘기를 굉장한 영웅담인 것처럼 대놓고 말해 식겁했다”며 놀란 심경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사장이 구성원들과 가진 간담회였는데 내용이 너무 놀라웠다”며 “당시 심 사장은 술도 안 마신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오늘 심원택 망언 폭로 기자회견

심원택의 망언이 전해지자 지난 25일 5월 단체들은 여수MBC를 향의 방문했지만, 심원택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거듭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에서 심원택은 문제가 된 발언

들을 대부분 부인했다. 도리어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며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적폐 정권에 충성했던 대가로 지역MBC 사장 자리를 하사받은 부역자에게는 일말의 양심도, 최소한의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망각과 궤변,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부패 세력의 필수 요건인가! 이에 여수지부와 5월 단체들은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심원택의 망언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프리랜서 작가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했던 여수MBC 작가 6명 가운데 5명이 심원택의 망언을 직접 증언하기로 했다.

“그 많은 돈 들여 세월호를 왜 인양하나”

심원택은 지난 4월 언론노조가 꼽은 ‘언론장악 부역자’에 오른 인물로, 2013년 MBC 시사제작2부장 시절 당시 정부·여당 비판 아이템 검열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가 보도 책임자로 있던 시사매거진 2580에선 4대강 관련 업체들의 담합과 미자금 문제, NLL 침출 취재 등은 ‘취재 불가 판정’을 받거나 대폭 축소됐다. 심원택은 당시 정부·여당 비판아이템을 발제하는 기자들을 ‘중북 좌파’로 매도하거나 인사 최하 등급인 R등급을 부여했다. 지난 3월 세월호가 1080여일 만에 물으로 인양되던 시기에는 여수MBC 직원들 앞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세월호를 왜 인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시대의 썩...퇴진만이 답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언론의 흑역사,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MBC의 중심에 항상 심원택이 있었다. 그의 독선과 무능, 뒤틀린 이



념과 가치관은 이제 여수MBC와 지역 사회를 거센 분노와 반발로 내몰고 있다. 심원택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5·18 정신을 부정하고, 세월호 인양을 폄훼해 유가족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입혔다. 이제 심원택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다. 우리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는 심원택에 대한 퇴진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5·18 영령들과 함께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무너진 MBC뉴스를 반드시 재건할 것이다.

심원택 망언 증언록

장소

여주시 여서동 모처

일시

5월 23일 18시 30분 ~ 21시 20분

참석자 A씨 증언

심원택 사장: “전두환 회고록 읽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읽어보세요.”

참석자 A씨: “사서 읽으셨어요?”

심원택 사장: “사서 읽지.”

참석자 A씨: “그것을 구입하면 인세가 전두환한테 가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삽니다...”

심원택 사장: “인세가 저자에게 가는 건 당연한데 왜 아깝느냐. 나는 감명 깊게 읽었어요.”

참석자 B씨: “어떤 부분을 그렇게 감명 깊게 읽으셨어요?”

심원택 사장: “전두환 멋진 사람이에요.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참석자 B씨 증언

참석자 B씨: “어느 대목이 그렇게 감명 깊으셨어요?”

심원택 사장: “전두환이 멋져, 멋진 사람이야. 내가 기자생활을 오래하면서 전두환도 취재하고 있었는데 백담사를 찾아간 적도 있다. 불도 안 들어 오고 추운 방에서 지내고 있더라. 거기서 생활한 것 보니까 사람이 안쓰럽더라.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지. 전두환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지. 전두환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참석자 C씨 증언

심원택 사장: “역사적인 조명을 할 때 어느 한 편의 기록이 있었다면 전두환의 편에서 본 기록이 있다. 그것도 정당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 자서전에 언급된 북한군 개입설도 팩트일 수 있다. 전두환 회고록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전두환은 절대로 정권을 찬탈할 의지가 없었고 대통령 될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 생각이 맞다고 본다. 왜 광주 사람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전두환도 피해자다.”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광주 사람의 눈으로 본 것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광주 사람들의 눈으로 본 것만 맞다고 보느냐?”

참석자 D씨 증언

심원택 사장: “전두환 멋진 사람인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 “이순자 자서전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순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낙하산은 물러나라!”

춘천, 대전 이어 경남에서 세 번째 지역 집회

26일 MBC경남 창원사옥 앞마당에서 ‘김장겸 낙하산 사장 퇴진 경남 결의대회’가 열렸다. 춘천, 대전에 이어 열린 세 번째 지역 집회였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지역지부 조합원 400여 명은 물론, ‘KBS·MBC 정상화를 위한 경남시민행동’ 회원 100여 명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MBC경남은 지역MBC 중에서 최초로 강제 통폐합된 곳이고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온 곳이기도 하다. 기자들이 공정방송 동영상에 참가해 무려 13명이 징계를 받고 인사고과 역시 최하점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언론노조 MBC본부 경남지부장은 “지역MBC

파괴 공작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경남”이라며 “낙하산의 상징인 김일곤 사장을 퇴진시키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역MBC 조합원들이 모두 모인 만큼 ‘팔도 사투리 웅변대회’도 열렸다. 강원영동지부의 이용철 조합원은 “서울 사장 바뀔 때마다 지태있던 암통머리들이 지역에 낙하산으로 아주 마이 와 어찌 그리 마이 와”라며 강원도 사투리로 지역MBC의 낙하산 사장 관행을 유쾌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특색 있는 사투리 웅변이 이어질 때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날 집회는 강고하게 파업 대오를 유지하

겠다는 의지를 담아 ‘그레이트 파워업’이란 부제가 붙었다. 실제로 김장겸 사장과 지역 MBC의 낙하산 사장들이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무능력 낙하산 사장 선임... 지역MBC 골병든다

“지역사 사장 선임 구조 개선 통해 수평적 네트워크 복원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MBC의 자력이었던 네트워크 체제는 철저히 붕괴됐다. 정권이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내세워 MBC를 지배하는 동안 지역MBC의 공영성과 공정성도 함께 무너졌다. 대주주인 MBC가 철저한 자사 중심의 생존 전략에 맞춰 지역MBC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사의 재정건전성과 자율성, 지역성은 크게 약화됐다. 인사권을 쥔 언론 적폐 세력들이 지역사 사장들의 자리를 좌지우지하면서 네트워크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했다.



김철진
원주 MBC사장



김현중
목포 MBC사장



윤길용
MBC NET사장



장근수
MBC 강원영동 사장

지역사 사장은 ‘파리 목숨’ ... 본사가 좌지우지

김재철 사장 시절, 3년 임기를 보장하던 지역MBC 사장 인사는 임기에 관계없이 교체되고 연임이 가능해지는 ‘제 맘대로’ 구조로 바뀌었다. 노조의 행사가 회사 안에서 열렸다는 이유로 광주MBC의 사장이 1년 만에 쫓겨난 사례가 단적인 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지역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영평가는 방송평가 지수 등 계량화된 기준보다 노조탄압의 효율성 등 비계량화된 기준의 배점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지역MBC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표적감사가 수시로 진행되면서 감사권한 또한 지역MBC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러다 보니 지역사 사장들은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지역사의 현실과 사정을 외면한 채 본사 사장과 임원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지역MBC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계회사 부장이 지역사 사장 위에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됐을까?

부역 대가로 내리꽂히는 낙하산들

더 큰 문제는 정권의 언론 장악에 적극 부역한 ‘공범자들’이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지역사 낙하산 사장으로 내리꽂히는 현실이다. 이미

퇴진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춘천 송재우, 대전 이진숙, 여수 심원택 뿐만이 아니다.

최승호PD 등을 다른 부서로 쫓아내면서 <PD수첩>을 망가뜨린 김현중은 목포MBC 사장 자리를 맡아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PD수첩>을 스스로 무너뜨린 윤길용은 울산 MBC 사장을 거쳐 지역 네트워크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MBCNET 사장 자리까지 꿰찼다. <PD수첩> 부장 시절, PD들의 서랍을 뒤지던 민망한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혀 망신을 샀던 김철진은 원주MBC 사장이 됐고, ‘미션 실세’ 정윤희의 아들을 드라마에 집중 출연시키고 출연료까지 두둑하게 챙겨줬던 장근수는 MBC 강원영동 사장으로 영전했다.

지역 MBC 사장 선임 구조 획기적 개선 시급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본사 사장 마음대로 지역사 사장을 결정하는 현재의 선임 구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 또는 정관을 일부 개정해 방송문화진흥회에 별도의 지역사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사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얼마나 지역에 애정이 있는지, 어떻게 지역 현실에 맞게 회사를 경영하고 지역 시민사회와 어떤 교감을 가져갈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지역사의 자율·책임 경영 여건 강화해야

지역사 사장의 자율·책임 경영을 위한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상무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상무제도는 지역MBC에 연간 2억 5천만 원 안팎의 비용 부담을 전가하며 지역사의 공간을 축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 사장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지역성을 약화시키는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지역사에 대한 경영 평가 기준 역시 비계량 점수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사 사장이 얼마나 지역민들의 요구를 담아 경영을 했는지, 뉴스와 프로그램은 얼마나 지역성과 공정성을 추구했는지를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다면 언론 부역자들이 청산된다 해도 지역MBC에서는 제2, 제3의 이진숙, 송재우, 김현중, 심원택 등이 언제든지 나타날 것이다. 지역사 사장 선임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공영방송 MBC가 지역민들의 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MBC는 대주주인 MBC에서 남는 인사들을 내려보내는 휴게실이 아니다. 네트워크의 붕괴는 MBC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너지는 것이다.